

2022 OPEN! 11.

신앙진단! 깨닫고 움직였는가? (파토스의 회복)

1. 괴리감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괴리감'이다. 괴리감은 서로 어긋나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인간에게 괴리감이 생긴 이유는 엄밀히 말하자면 '죄'의 결과이다. '죄'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온전하고 건강한 자아상의 회복은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 현대인들의 고통은 '불안한 자아상 -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존재적 불안함이다. 존재적 불안함의 원인은 '분리'로부터 온다. 그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탄생이다. 갓난아이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품' 뿐이다. 분유와 편안한 요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전혀 거부감이 없던 존재였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에 '순응'된 존재였다. 그런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타락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질타한다.

[이사야 59:1-5]

1 여호와와 손이 짝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4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 3절 - 손이 피에 물들어 있다.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져 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말한다.

* 4절 - 공의와 진실이 무너져 있다. 법이 무너져 있다. 허망한 것을 따른다.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이 거미줄처럼 시스템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파괴된 이유의 원인을 '죄'로 보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모습을 보라. 안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불안은 언제 터져도 터질 핵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2. 신앙의 괴리감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괴리감의 문제이다. 하나님과 나로부터 오는 엄청난 간극을 말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괴리감이 신앙생활에 낙담을 준다. 괴리감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작은 간극은 돌아오기도 쉽지만, 너무 멀어지면 절망도 비례하여 멀어진다. 그때 포기한다. '나는 할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어. 너무 멀리 왔어'라며 스스로 자책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

(1) 구도자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간극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니고데모 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괴리감을 토로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한 마디로 말하면 '구도자'이다. '찾는 자들'이다. 이들은 진리를 들을 수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는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구원관'의 전면 수정이 일어나는 장면이다. 구도자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괴리감을 좀처럼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에게 진리가 전부이다. 자기에게 있는 지위나 체면이 중요하지 않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 청년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2) 종교인들

다른 하나는 종교인들(사울)처럼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종교인을 향한 예수님의 정의는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 속은 죽어 있는 회가 칠한 화려한 무덤이다. 이들에게 내면의 괴리감을 좁힐 이유도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임재 없는 예배에 익숙하다. 죄에 반응하는 내면의 양심이 죽은 지 오래이다.

3. 괴리감의 원인

신앙의 괴리감의 원인은 아주 분명하다. '생각'으로 믿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런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는 것은 커지는데, 아는 것을 담을 그릇은 너무 작다. 그곳으로부터 '괴리감'이 시작된다. '괴리감'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열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열정'은 움직일 힘을 말한다. '열정'없는 차가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 아브라함 J. 헤셀과의 인터뷰

'학문은 조용한 서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시끄러운 장터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학문은 신학은 골방에서 시작되지만, 시끄러운 장터에서 완성된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사람들이며, 시끄러운 장터에서 목 놓아 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서재에서만 깨닫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깨달음으로 인한 괴리감에 스스로 눌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장터로 나가야 마음에 불이 일어난다. 조용한 서재와 골방은 나의 머리를 깨울 수 있지만, 현장의 나의 가슴을 불태운다.** 오늘 내 신앙의 괴리감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의 회복이다.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이 하나되는 순간이다.

[에베소서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완성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4. 파토스의 회복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말했다.

- * **로고스** :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메세지) - 내가 말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성.
- * **에토스** : 우리가 누구인가? (인품,인격) 메시지를 전하는 화자의 인격. 신뢰감.
- * **파토스** : 우리가 어떤 열정으로 말하느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호소력)

위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파토스(열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으로부터 온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온다. 머리로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아가갈 때 일어나는 마음의 불을 말한다.

*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다.

파토스는 일시적 흥분으로부터 오는 열정이 아니다. 파토스의 어원은 '고통'이다. 예수님의 파토스는 이 시대를 바라본 예수님의 무너진 마음으로부터 온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무너진 마음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파토스가 시작된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본 느헤미야. 그의 무너진 마음으로부터 오는 눈물이 재건을 향한 파토스가 된다. 오늘 파토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 파토스를 회복해야 한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 결국 무너진 마음이 사명이 된다. 그 사명이 변화의 열정 파토스가 된다. 파토스가 필요하다. 사명이 필요하다. 사명자로 일어나야 한다.